



대행 스님

오직 나오는 그 속에다 다시 놓아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불사가 잘못해서 2년이 걸렸습니까. 여러분이 불 땐 2년이지만 내가 불 땐 한 달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속을 썩습니까? 하하하... 아니, 2년이 걸렸든 하루가 걸렸든 3년이 걸렸든 10년이 걸렸든 백 년이 걸렸든, 천 년이 걸렸든 내가 무슨 걱정을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그게? 안달복달 아무리 해 봐도 할 때가 돼야 되는 거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해 놓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집을 짓고 나서 바로 경전이라든가 학인들을 가르치려면, 우리의 언어나 용어를 전자의 방편의 용어하고 결맞게 바꾸어서 대처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화엄경 하나 가지고도 10년이 걸렸대요, 모두.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드니까... 아, 먹일 걸 해 놓고 불려야지 먹일 걸 해 놓지도 않고 부른다면 그거 말이 나 됩니까. 빈 상 놓고 오라고 그래요? 그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 잘못다. 하하하... 잘못다.' 이러는 거예요. '이 절이 늦게 지어지는 게 그래서 이렇게 늦게 지어지는구나.' 그리고는 가니까 내 마음은 아주 더더욱 편안하죠. 하하하... 그러나 이게 부처님 법이 아니고 됩니까? 네? 덩그러니 집만 뒀더라면 이게 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집만 덩그러니 해 놓고 알맹이가 없다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걱정한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 누가 만들었다,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라고 나무랄 수가 없죠. 그게 다 내 돈입니까, 또? 하하하... 여러 부처님들 돈이죠. 그러니 부처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내가 모르든 알든, 잘못하든 잘하든 진실하게만 심부름을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더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못났으면 못난 대로 하는 거지 어떡하느냐 애꿎니다. 남한테 해롭게 안 하고 내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고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지, 내가 더 잘하려고 집착하고 운통 아난법석을 해 봤던들 그건 허사입니다. 모두가 허망이고 욕심이고 여러분한테 오히려 애만 타게 하고, 불인하게 하고, 구멍이에 빠지게 하니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은 앞으로 금집을 짓고 금뿔을 해 가지고, 하하하... 상세계에서 잘해서 중자를 별성으로, 그냥 모두 별같이 총총하게



그림 · 최주현

해서 이 세상을 달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아, 삼분의 이가 아니라 삼분의 일만 잘한다 해도 이 세계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린 개개인이 혼자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극치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배우고 알면 모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질문만 받고 얘기는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올라오니까 또 말을 하게 되네요. 하하하...

질문자(남): 저는 일산에서 왔습니다. 저는 큰스님을 알고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공부해 온 과정을 말씀드리고 점검을 받아 보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가정의 우환과 병고로 혼자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역 공부도 좀 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음은 더 같들어 일어나고 저의 그 짜증스러운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생시인지 꿈인지

분간이 잘 안되는 순간에, 큰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아니다'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무(無)』라는 책을 낮에 읽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잡아 일으키는 것처럼 딱 고개가 들리더니, 내가 울지도 않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계속, 한 30분간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도 진실한 뜻을 모르고 지나다가, 여기 선원에 한번 와서 큰스님 법문 카세트 테이프를 좀 사 가지고 가서 차에다 놓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차만 타면 그 테이프를 계속 들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마음에 닿는 것도 있지 마는 모르는 거 투성이였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그걸 열심히 듣다 보니까 신호위반도 하고 넘어갈 때도 많고, 그래도 걸리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쪽 공부를 했는데, 한번은 도대체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고 내가 만일에 죽

었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몸을 하나하나 분해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내 몸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이더라구요. 그래서 물방울이 돼서 한번 흘러 내려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산꼭대기에서부터, 계속 흘러 내려가서 나무가 먹으면 나무로도 들어가고, 또 풀이 먹으면 풀로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쪽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바다로 가더라구요. 그럼 바다에서 머물고 있느냐? 그렇게 의심을 갖고 있는데 바다에서 수증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하! 이게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제 몸이 실타레처럼 착 풀리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실타레가 풀리는 것처럼 풀리더라고요. 그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불안 같은 것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고 있으면 때로는 이 몸뚱이랑 산처럼 커져 보기도 하고, 또 어

떤 날은 앞에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게 와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데, 한 날은 잠을 자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잘 안됐습니다만 저기 부처님 형상 같은 얼굴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이상하다는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3, 4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 부처님 형상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미간에 물줄기가 하나 쪽 뻗더니 고기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있더니 수많은 염주알이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그런데 염주알인 것처럼 보이다가는 그게 또 옹으로 변하더군요. 그러다가 또 잠잠해지더니 하얀 새들이 한 너댓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 혼자 나름대로 공부를 지금까지 해 오다가, 범행에는 이제 오늘까지 딱 네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왔다 가는 첫날 밤 꿈에 창고에 불이 하나 붙었는데 처음에는 조그맣게 연기가 나오기에, 이게 무슨 불인가 하고 살아생전의 의식처럼 바깥으로 물을 떠다가 끄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책 쌓아 놓은 창고 같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붓자 더욱 세게 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치약산 갔다 왔을 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데 저도 거기서 구경을 하다 낚시를 하나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낚시가 그물로 변하더니 큰 고기를 한 마리 낚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바다에다가 던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들어가더니, 들어가는 장소가 확하게 변하더니 거기서 아주 잘생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확실히 마음에 의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스님들 점검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큰스님: 다 끝났습니까? 하하하... 그러나 그 고기를 건진 놈도 당신이고, 고기도 당신이고, 나온 놈도 당신이고, 고기가 부처님한테서 나온 것도 바로 당신이요, 또는 그 한 마리에서 수천의 염주알로 화(化)한 것도 당신, 당신이 알 일이요, 당신의 법입니다. 그것이 모두 공부니까 마음을 그렇게 가다듬지 못해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시고 오직 나오는 그 속에 다시 놓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헌불샵!
02)2004-8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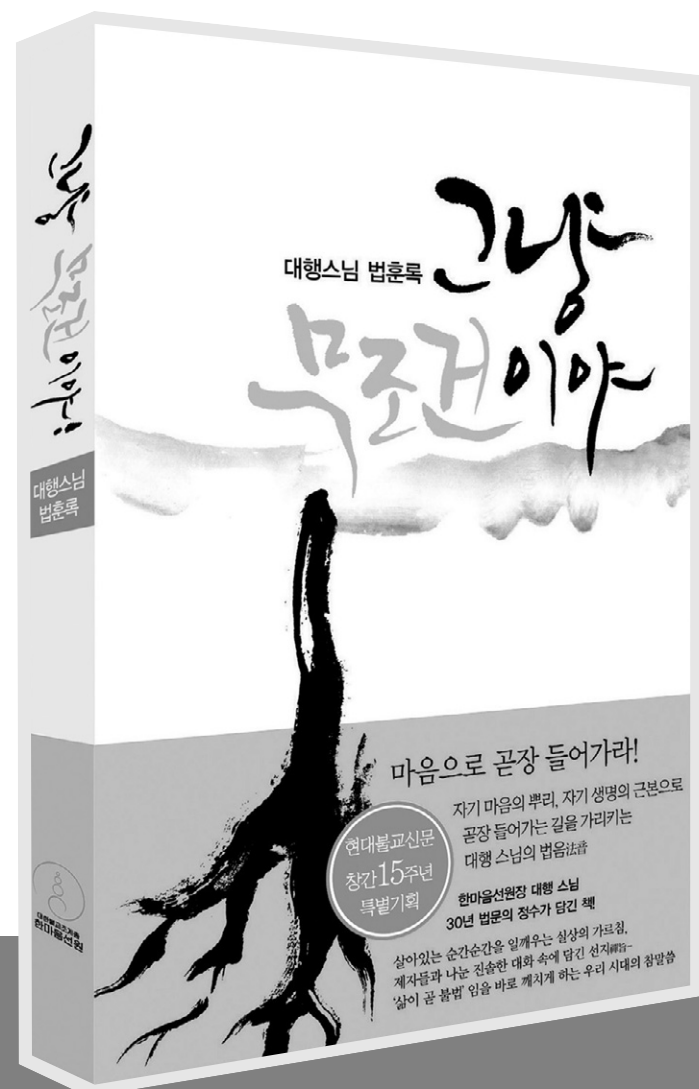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이 몸이 죽기 전에 마음이 좀 죽으면 어떻습니까

29면에서 계속

고... 죽어야 하나 열심히 하세요. 죽어야 죽은 세상을 다 배우죠. 아시겠어요? 죽어야 죽은 세상을 다 알 수 있다 아깝니다. 그러니까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열반이라는 그 자체도 살 아생전에 열반을 해야 죽고 나서 열반이 아니라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죽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 죽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어차피 앞으로 한 번은 죽을 거 이 몸이 죽기 전에 마음이 좀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하하... 몸이 죽기 전에 죽어야 합니다, 모두.

질문자2(남): 청주지원에서 왔습니다. 그 동안 큰스님의 이해와 같은 은혜를 입어서 제 스스로 어느 정도는 제 몸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도 돼 봤고, 또 이 세상의 극락에서도 제 나름대로 살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가 제 자신 혼자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저 혼자만 아닌 여럿의 삶을 살게 됴므로써,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주인공에 맡기면서 마음을 내 봤습니다만 주인공에 맡기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제 눈으로 그 영(靈)의 세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언제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밀어 넣으면 또 나오고 밀어 넣으면 또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심안을 열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이거 보세요. 궁금하긴 뭐가 궁금하니까?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으라고 그랬으니 믿어야죠. 뭐가 궁금하니까? 제 뿌리에서 제 싹이 나서 제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왜 그 뿌리를 의심하니까? 자꾸, 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뿌리에서 가지, 잎새 다 나오고, 흔들리는 것도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흔들리고, 바람을 맞는 것도, 채이는 것도, 눈을 맞는 것도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제 뿌리의 제 나무가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그냥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까? 그대로 믿는다면 자꾸 되풀이되질 않겠지만, 이게 못 믿고 궁금하고 그러면 자꾸 제자리 걸음을 걸어야죠. 좀 폭 놓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아, 죽든지 살든지 생사의 문제도 거기에는 그냥 놓으세요. 언제 죽든지 살든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말고요. 죽고 사는 것도, 또 남을 건진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몸뚱이 속의 중생들부터 건져야 남을 건지지 내 몸뚱이 속의 중생들도 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것이 다 한마음으로 돌아가게끔 그냥 몽땅 믿으세요, 그냥.

남김없이 믿고 거기 놓으시면 돼요. (함정하며) 그 마음이 그렇게 생길 때는 '참 감사하구

나! 주인공' 하고요. 주인공이라하면 일체 공심을 말합니다. 공심 말합니다. '참 고맙구나!' 하고 거기다가 놓으면은 그게 입력이 되죠. 그래서 공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공심을 몰라 가지고요 공용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도 건져지고 들어도 건져지고. 그거 가고 오지 않아도 가고 오미 없이 가고 오면서 건져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죠.

질문자3(남): 공주에서 온 학생입니다. 한마음 공부 한 지는 1년 다 됐는데, 좀 계으르고 어리석어서 공부한다는 게 좀 싫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직접 큰스님 면전에서 뵈고 한 말씀 듣고 약속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큰스님: 잘 나왔어요. 계으르다거나 잠이 많아서 공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는 것

놓지 못하고 좀 지나가는 게 있더라도, 어떤 의정을 꼭 잡고 간다면, 더 거기서 용맹정진을 한다면 자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의정이 나게 하는 것도 내가 나게 하는 거다.' 하고서 관은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자면, 내가 일부터 내 가지고 하는 것은 의정이 아니에요. 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그림자같이 나타났다가 할 때 '아, 저게 뭣인가?' 하고 스스로의 문스러운 게 있어야 의정이야, 아니, 변연이 여기 있는 걸 알면서 의정을 내면 그게 의정입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알아야 내가 스스로 무의법을 배우죠. '현재 자기가 과거 자기를 만났을 때에 부(父)와 자(子)가 만난 것이니라.' 하는데, 이렇게 상봉할 때에, 과거하고 현재하고 만났을 때, 돌아서 만났을 때에 나를 알 수 있는 겁니

때에 '이건 우연이지.' 이렇게 생각 말고, '우연' 하는 없다. 내가 있는 이상 우연하는 없다.' 그리고 그냥 거기다가 놓고 '아, 감사하구나!' 이러고 또 가다 보면 어떤 조그만 거라도 또 체험이 될 때 또 놓고 가고, 자꾸자꾸 그렇게 되면 이게 조복이 돼요. 그런 연에 내가 완전히 발견이 되게 되고, 그때는 뭐 그냥 의정이 나오는 거죠. 한창 배울 때는 의정이 많죠.

내가 이런 말도 했죠. 예전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다가 그냥 쓰러져 있는데 물줄기 내려가는 소리가 나서 겨우 영금영금 기어서 물을 한 모금을 먹으려니까, '물 한 모금을 먹는데에 천 모금이 될 수도 있고 삼천 모금이 될 수도 있다.' 이거야. 그 삼천 모금이 한 모금이 될 수 있고 한 모금이 삼천 모금이 될 수도 있다니 그게 언 어도단이지 그게 뭘이냐? 그러니까 그때, 그냥 쓰러져 있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구요. 그게 의정이예요.

내가 힘이 없이 하신단 얘기죠.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이만큼 배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예요. 힘이 없이 하는 거를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한다고 부처님이 그러시는 거 보셨어요? 힘이 없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팔자 굴어서만 말 해야 하는데, 그게 말한 것입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공(空)했느니라.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그러니 그냥 공했다는 말까지도 나라. 없다. 공했다는 말 자체도 없다.' 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게 참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 나오셔서 질문하시는 것도 하는 사이 없이 그냥,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라 이거야, 남을 위해서. 그렇게 '아이, 그런 분들이 좀 하지 않고...' 이러곤 그냥 속으로만 중얼중얼하고 나왔습니다. 하하하...

사회자: 질문 다 마쳤습니다.

큰스님: 다 마쳤습니까? 예, 내가 불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설법도 들어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우트라인은 다 말씀을 해 놓으시고는 정작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에게 놓으라는 말씀 없으세요. 모두가요. 자기한테는 자기가 제일 첫째 문제입니다. 자기 마음이 보배고 자기 몸도 정말 그렇게 소중한게 생각해야만 되는 그런 몸입니다. 남의 몸을, 부모의 몸을 빌려서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몸을 함부로 굴러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부처님의 법을 알게 되는 것도 이 몸 때문에 알게 되는 건데 함부로 굴러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냥 펼쳐 버리는데, 버리지 않고 버려라 이겁니다. 소중한 이 몸을 버리지 않고... 자기 몸으로 아 니가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자기 몸이 아니예요. 모든 생명들이 살고 있는 집합체죠. 남의 집을 갖다가 그렇게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을 자기 몸이라고 착각하고 함부로 굴러지 마시고, 남의 생명들의 집이라고 생각할 때는 참 소중한 겁니다. 중생들의 집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되죠, 마음으로 이 몸뚱이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뭐 하깨비 같고 구름 같고 이렇다니까 그냥 내버려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야만 이 세세생생에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고 그럴 수 있습니다.

* 위 법문은 1996년 4월 7일 법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죽든지 살든지 생사의 문제도 주인공에다 그냥 놓으세요.

언제 죽든지 살든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말고요.

죽고 사는 것도, 또 남을 건진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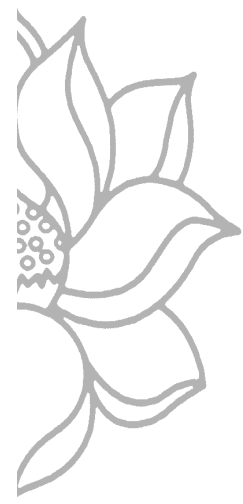
내 몸뚱이 속의 중생들부터 건져야 남을 건지지

내 몸뚱이 속의 중생들도 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것이 다 한마음으로 돌아가게끔

그냥 몽땅 믿으세요, 그냥.



도 참선이요, 깨어 있는 것도 참선이요, 서 있는 것도 참선이요, 앉아 있는 것도 참선이요, 일하는 것도 참선이요, 누워 자는 것도 참선이요. 그렇기 때문에 외선이나 입선이나 좌선이나 행선이나 그게 전부 참선이 돼요. 하하하... 빠짐없이 참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게을러서 이 공부를 못 하지.'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그저 생각하면 '주인공, 네가 너의 몸을 형성시켜서 이렇게 끌고 가니까 물리가 터지게 하는 것도 나쁜이야.' 하하하... 그냥, 그냥 아예 철석같이 믿고 그냥, 그냥 그렇게 해 버리고 흘러가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도, 아주 하기 쉬운 것이 이 공부인데... 하하하... 아주 하기 쉽고 간편하고 중간지만 알았다 해도 아주 간편한 건데 말입니다. 아이, 참 내!

질문자4(남): 본원에 다니고 있는 신도입니다. 제가 공부하다 느낀 것은, 저를 아직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저 자신을 100%는 못 믿더라도, 제가 또 외부 경계와 내면의 경계를 100% 돌려

다. 일 겁이라고 한다면 겁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겁이 만약, 만천억 이렇게 할 때에, 어저께도 일 겁이 될 수도 있고, 천 겁이 될 수도 있고, 만 겁이 될 수도 있어요. 어저께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부터 알아야, 그렇게 상봉을 해서 알아야, 무의법의 채택을 맞아야 거기에서 진실로 의정이 나죠.

내가 예전에 그랬죠. 그때에 백련사라는 데를 가는데 아, 어느 묘지가 있는데 말입니다. '저 묘지는 아버의 묘지이고 이것은 아들의 묘지인데, 아이들이 아비한테로 오면 아버로 하나가 되고 또 아버가 아들한테로 가면 아들로 하나가 되니 그건 무슨 연고냐?' 하고 물었을 때에 그거를 모르니까 의정이 날 수밖에. 그게 의정이예요. 그런 게 의정이면 변연이 아는 걸 의정을 내 가지고 내가 의심한다는 건 의정이 아니라, 그런 망상이지.

그러니까 아무 의심도 하지 말고요, 내가 스스로 생활 속에서 그냥 거기다가 놓고 갈 때에 체험이 되는 게 있어요. 조그만 거라도 체험이 될

질문자4(남):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질문도 몇 번 나와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주로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오래 되신 분들이 지금 어떠한 경계로 부딪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공부 과정을 오래 공부한 어느 분이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같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큰스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좀 오래 되신 분 중에서 한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네, 오늘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오래 이렇게 공부해 가시는 분들은 그냥 나 할 일만 쫓하면서 가고 있지, 정말 상층에서는 한 분도 나오지 않는다고요. 새로 들어온 사람은 조그마한 거라도 경험을 하면 그걸 가지고 나오시고, 또 경험 못한 분도 나오시고, 아파서 나오시고, 이러한 분들만 나오지, 하하하, 상층, 중층에서는 나오지 않고 그 밑으로 그렇게 나오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 의정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방편으로써

건강백서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뢰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뚱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가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애타게 냉하거나 손, 발이 차신분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제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뢰기기 (02)723-0099
 ◆ 임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지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오주배개등 지제품대양)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行孝 行孝 行孝
 嚴父 嚴父 嚴父
 嚴母 嚴母 嚴母
 嚴父 嚴父 嚴父
 嚴母 嚴母 嚴母
 嚴父 嚴父 嚴父
 嚴母 嚴母 嚴母

고급 뱀나무 재질, 울림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격 大 / 中 / 小의 다양한 규격
 ● 흑단재사용위패(가정용)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25년 전통
 조상의 열과 흠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홍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